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구조

이 종 태*

요 약

미국의 FASB에서는 1976년 이익측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이익을 자산·부채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자산부채접근법(asset and liability view)이고, 또 하나는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수익비용접근법(revenue and expense view)이다. 이들의 차이점은 이익측정에 있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업의 업적을 자산·부채로부터 파악하는 자산부채접근법은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익·비용으로부터 파악하는 수익비용접근법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접근법 중 최근에는 수익비용접근법에서 자산부채접근법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관의 전환은 회계의 각 분야에 새로운 과제를 남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제3의 기본재무제표로 자리잡고 있는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 현금흐름표는 수익비용접근법을 전제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자산부채접근법을 전제로 할 경우 현금흐름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FASB의 토의자료에 의한 자산부채접근법과 수익비용접근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실무에서 사용되어 온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가 수익비용접근법을 전제로 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산부채접근법을 전제로 할 경우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현금흐름표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IASB와 FASB의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여기서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위해 현금흐름표는 각 부문과 구분의 현금흐름을 직접법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IASB와 FASB 공동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향후 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도입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 머리말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에

서는 1976년 이익측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FASB, 1976). 하나는 이익을 자산·부채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자산부채접근법(asset and liability view)이고, 또 하나는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정의하는 수익비용접근법(revenue and expense view)이다. 이들의 차이점은 이익 측정에 있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업의 업적을 자산·부채로부터 파악하는 자산부채접근법은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익·비용으로부터 파악하는 수익비용접근법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접근법 중 최근에는 수익비용 접근법에서 자산부채접근법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관의 전환은 회계의 각 분야에 새로운 과제를 남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제3의 기본재무제표로 자리잡고 있는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 현금흐름표는 수익비용접근법을 전제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자산부채접근법을 전제로 할 경우 현금흐름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금흐름 정보는 발생주의에 의한 이익 정보보다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흐름의 정보는 상기 이익측정의 관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상기 이익측정의 관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재무제표의 체계하에서의 자산부채접근법을 전제로 할 경우의 현금흐름표의 양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금흐름표는 1987년 미국의 재무회

계기준서 제95호(FASB, 1987)가 발표된 이래, 기본재무제표의 하나로 공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의 표시방법, 즉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한 문제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 필요한 항목을 가감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는 이미 작성된 재무제표로부터 유도된다. 이에 비해 직접법은 현금의 유입 총액에서 현금의 유출 총액을 차감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현금흐름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로부터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직접법은 간접법과 비교하기 위해 재무제표로부터 유도하는 후자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현재까지 실무에서는 대부분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와 FASB는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IASB, 2008, 2010a, 2010b). 이 공동 프로젝트는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공통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위해 현금흐름표는 각 부문과 구분의 현금흐름을 직접법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IASB와 FASB 공동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FASB의 토의자료에 의한 자산부채접근법과 수익비용접근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실무에서 사용되어 온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가 수익비용접근법을 전제로 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산부채접근법을 전제로 할 경우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II. 토의자료에 의한 자산부채접근법과 수익비용접근법의 비교분석

FASB는 1976년의 토의자료(FASB, 1976)에서 자산부채접근법과 수익비용접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일정기간의 기업의 순자원의 증가액을 이익으로 보며, 이익을 자산·부채의 증감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익의 적극적 요소(수익)는 당해 기간의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로

정의되고, 이익의 소극적 요소(비용)는 당해 기간의 자산의 감소 및 부채의 증가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산 및 부채,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장래 다른 기업(개인 포함)에 자원을 넘겨줘야 하는 기업의 의무에 대한 재무적 표현이 자산부채접근법의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FASB, 1976, para.34).

이에 따라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 구성요소인 자산·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산은 경제적 자원의 재무적 표현으로 현금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거래 또는 事象의 결과로서 당해 특정 기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순현금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경제적 편익이다(FASB, 1976, para.91 A-1). 부채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거래 또는 事象의 결과로서 장래 경제적 자원을 다른 기업에 넘겨줘야 하는 당해 특정 기업의 의무에 대한 재무적 표현이다(FASB, 1976, para.149 L-1).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자산·부채의 속성 및 당해 속성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측정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재무제표의 다른 구성요소, 즉 소유주 지분 또는 자본, 이익,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은 자산·부채의 속성 측정치의 차액 또는 그 변동액으로 측정되게 된다(FASB, 1976, para.34).

이에 비해 수익비용 접근법에서는 산출물(output)의 획득 및 판매를 목적으로 투입물(input)을 활용하는 기업의 활동 성과에 대한 측정치를 이익으로 보며, 이익을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즉 기업의 이익획득 활동에 있어서의 산출물 및 투입물의 재무적 표현이 수익비용 접근법의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FASB, 1976, para.38).

이에 따라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 구성요소인 수익·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수익은 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측정치로 일정기간의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FASB, 1976, para.194 R-7). 비용은 일정기간의 수익을 획득하는데 사용되어 이러한 수익에 대응되는 투입물의 원가이다(FASB, 1976, para.194 X-7).

수익비용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일정기간의 노력(비용)과 성과(수익)를 대응시키기 위해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측정 과정이 되는 것이다(FASB, 1976, para. 39). 그 결과 자산·부채의 측정은 이익 측정과정의 필요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수익비용 접근법에 의한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장래 다른 기업에 자원을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나타

내지 않는 항목도 자산·부채 또는 기타 요소로 기재되는 것이 있게 된다(FASB, 1976, para.42).

이러한 문제로부터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수익·비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익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게 되어 이익측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게 된다(FASB, 1976, para.60). 따라서 여기서는 이 둘 두 가지 접근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해,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항목이 자산부채 접근법에서의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장래의 순현금유입 또는 유출을 가져오는지의 문제와 과거의 거래 또는 事象에 의해 발생하는지의 문제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 중 장래의 순현금유입과 유출 및 과거의 거래 또는 事象의 발생에 따라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장래 수입이면서 현재 수익으로 계상되는 항목(미수수익)은 장래의 순현금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 비용이면서 현재 지출된 항목은 장래의 순현금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선급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만, 장래의 순현금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

분(이연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래 지출이면서 현재 비용으로 계상되는 항목(미지급비용)은 장래의 순현금유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면서 장래 수익으로 계상되는 항목은 장래의 경제적 자원의 인도의무를 가져오는 부분(선수수익)에 대해서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만, 장래의 경제적 자원의 인도의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이연수익)에 대해서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

둘째, 장래 지출이면서 현재 비용으로서 계상되는 항목 중 일부의 항목(충당금)에 대해서는 과거의 거래 또는 事象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면서 토의자료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가 실질적인 측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FASB, 1976, para.48)고 보고, 자산·부채의 측정 및 이익의 측정에 있어 이들 두 가지 접근법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재무상태표 항목의 범위를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이를 다른 기업에 넘겨줘야 하는 의무의 재무적 표현인 자산·부채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이를 다른 기업에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지 않는

항목(이연비용, 이연수익, 충당금)까지 확대하고 있다(FASB, 1976, para.51, 54).

둘째, 이익을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순자산의 변동액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보고 있다(FASB, 1976, para.56).

따라서 자산부채접근법과 수익비용접근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이익을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 재산(wealth)의 변동에 대한 측정치로 보고 있고(FASB, 1976, para.48), 후자는 이익을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업적(performance) 또는 수익력(earning power)에 대한 측정치로 보고 있다(FASB, 1976, para.49)는 것이다.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재산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고로 하면서, 거래의 인식·측정에 있어 우선 인식대상으로 개별 재화의 수량적 변동이 파악되고, 이후 이익계산의 관점에서 이를 공통척도인 화폐로 변환한다고 하는 인식·측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재화수량의 변동뿐만 아니라 측정속성의 변동도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거래가 자산·부채의 속성측정치에 변동에 따라 연속적으로 파악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재화를 공통척도인 화폐로 변환하는 과정, 즉 평가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한 측정속성의 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기

업의 업적 또는 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고로 하면서, 거래의 인식·측정에 있어 인식대상으로 현금수지의 수량적 변동이 파악되고, 동시에 이에 따른 측정이 이루어지는 인식·측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인식과 측정을 분리할 수 없으며, 평가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측정속성으로 개별 거래의 거래시점에서의 취득 원가가 채택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금수지의 변동만이 거래로 인식되고, 현금수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현금지출은 현금수입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거래가 현금수량의 변동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파악되게 된다. 또한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거래에 대한 시점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익계산시 발생주의에 의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 이루어져 상기의 이연비용, 이연수익, 충당금도 자산 및 부채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자산부채접근법과 수익비용접근법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자산부채접근법에 따라 회계기준이 작성되고 있다. 이는 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개념적 틀(IASB, 2001)에 따른 것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익비용접근법에서 자산부채접근법으로 바뀌게 되면 이로부터

더 작성되는 현금흐름표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자산부채접근법에서의 재무제표항목의 특성

재무제표항목의 질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예를 드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다음의 기초재무상태표, 기중 거래, 결산정리분개 및 정산표를 <예 1>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각 항목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외상매출금 ₩1,200의 분개에 있어 이전의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하면 상품의 발송, 즉 인도기준에 의해 매출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외상매출금이 계상된다. 이는 기업의 활동, 즉 기업의 노력의 결과로서 자산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발송한 상품의 원가(희생)와 매출(성과)은 서로 대응된다.

그러나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하면 매입처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 자산의 증가에 의해 수익이 계상된다. 즉 매출에 의해 외상매출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에 의해 매출이 계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매출원가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도 기말상품의 평가(₩650)가 매출원가의 결정요소로 된다. 이것과 장부

금액과(₩1,400)의 차이 ₩750이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과 매출원가 사이에는 관련성, 즉 개별적 대응관계는 없고, 단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도, TV 광고계약과 같이 계약에 의해 시간당 단가가 정해지고, 이 시간기준에 의

해 계산한 선급분 ₩20이 자산으로 먼저 결정되고 난 뒤, 광고선전비 ₩240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비용이 매출액의 증가요소가 되었는지의 사고와는 관계 없다. 즉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개별 자산 및 부채가 독립적으로 각각의 계산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나타낸 것이 <예 1>의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정산

<예 1>

<표 1> 기초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현금	500	외상매입금	200
상품	600	자 본 금	2,200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토지	700		
자산 총계	2,400	부채 및 자본 총계	2,400

<기중 거래>

(차) 현금	900	(대) 사채	900
토지	1,000	현금	1,000
매도가능금융자산	500	토지	500
상품	800	외상매입금	800
외상매입금	400	현금	400
외상매출금	1,200	매출	1,200
현금	500	외상매출금	500
광고선전비	260	현금	260

<결산정리분개>

(차) 대손상각비	70	(대) 대손충당금	70
매출원가	750	상품	750
선급광고선전비	20	광고선전비	20
감가상각비	50	감가상각누계액	5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	이연법인세부채	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80

<예 1> (계속)

<표 2>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정산표

(단위: 원)

계정과목	잔액시산표		결산정리분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영업활동>								
현금	240				240			
외상매출금	700				700			
대손충당금		0		70		70		
대손상각비			70				70	
외상매입금		600				600		
상품	1,400			750	650			
매출원가			750				750	
매출		1,200						1,200
광고선전비	260			20			240	
선급광고선전비			20		20			
<투자활동>								
건물	1,000				1,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50		450		
감가상각비			50				50	
토지	1,200				1,200			
매도가능금융자산	500				500			
<재무활동>								
사채		900				900		
자본금		2,200				2,200		
당기순이익						90	90	
계	5,300	5,300	890	890	4,310	4,310	1,200	1,200
<투자활동>								
매도가능금융자산			100		100			
이연법인세부채				20		20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80		80		80
당기순이익								90
총포괄손익							170	
합계	5,300	5,300	990	990	4,410	4,410	1,370	1,370

표이다. 이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의 기말평가에 의해 결정되고, 감가상각비는 평가계

정으로서의 감가상각누계액의 계산, 즉 건물의 평가(₩1,000-₩450)로부터 유도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이익의 구성요소로 되지 않기 때문

에 시가평가된 금액(₩100) 중 별도로 세무상 의무로서의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20)되어 시가평가된 금액과 이연법인세부채와의 차액(₩80)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에 동시에 계상된다(정산표에 별도의 란으로 표시).

이상과 같이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개별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수익·비용과는 상호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하, <예>의 정산표에서는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로 전개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 요소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IV. 수익비용접근법에서의 재무제표항목의 특성과 현금흐름표

그러면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재무제표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나타낸 것이 <예 2>의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한 정산표이다. 여기서는 현금흐름의 계산을 전제로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고, 그 결과로서 재무상태표가 유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한 각

재무제표항목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할부판매에 대해서는 수익인식기준으로서 인도기준 외에 회수기일도래 기준 또는 회수기준도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자기의 실정에 따라 판매, 즉 자신의 노력을 반영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자산부채접근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금 매출 ₩1,200(@₩24×50개) 중 절반, 즉 25개분 ₩600의 회수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하면, 이 중 회수된 금액이 ₩500이므로 ₩100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익으로서 계상된다. 즉 외상매출금은 수익인식기준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자산부채접근법과 같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에 대응되는 형태로 25개분(@₩14)의 매출원가 ₩350이 결정된다(개별대응의 원칙). 기말상품재고액 ₩1,050은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되는 지출되었지만 비용이 아닌 계산상의 잔액인 것이다. 특히 매출액(25개분)에 대응되지 않은 ₩350(@₩14×25개)은 이미 발송되었고 기업내부에 당해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광고선전비도 매출의 증가에 얼마나 공헌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600(@₩24×25개)의 매출액에 공헌한 비용만이 당기의 비용으로 된다. 지금 ₩260의 광고선전비가 52개분(@₩5)의 매출을

위해 지출되었다면 @₩5×25개 = ₩125가 당기의 비용으로 되고, 비용으로 되지 않은 ₩135이 지출되었지만 비용으로 되지 않은 장래의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 즉 선급광고선전비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다.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의 평가가 아니라 매출액에 대응되는 형태로 결정된다. 지금 판매된 상품 1개당 대손위험이 ₩2이라 가정하면 ₩600(25개)의 대손위험은 ₩50으로, 이 중 ₩500(20개 : 대손위험 ₩40)은 이미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되지 않은 5개분의 대손위험 ₩10이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된다. 그 결과 지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인 대손충당금이 계상되는 것이다. 이는 외상매출금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는 전기의 외상매출금이 없다. 따라서 대손충당금도 없지만, 만약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법으로 처리된다. 전기의 지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인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외상매출금(수입되지 않았지만 수익에 해당)은 이미 회수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앞의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보충법이 적용된다. 이는 기말시점의 자산, 즉 외상매출금의 평가가 합리적이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생산량비례법과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앞의 예와 같이 ₩50

으로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와는 관계없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해 언급하면, 평가이익 ₩100을 계상한 결과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600이 된다. 한편,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 ₩20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이연법인세부채 ₩20이 계상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익은 계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80이 계상된다. 이는 기업의 이익획득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와는 별도로 계상된다.

그러면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선 차이가 나는 것은 수익은 기업의 고유활동, 즉 내부 활동으로부터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채권의 확정, 즉 외부로부터 수익이 결정된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모두 수익과의 대응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현실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얼마나 공헌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광고선전비도 매출에 공헌함으로써 처음으로 합리적인 기간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다. 매출에 공헌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게 된 경

우에는 그 투자(지출)의 실패로 기간비용과는 별도의 손실로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익비용접근법에서의 회계수치는 모두 수익획득과 관련하여 결합된 수치라 할 수 있다. 개별 항목의 수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즉 회계수치는 수익획득활동이라는 목적 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회계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익의 질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수익비용접근법에서는

<예 2>

<표 3> 기초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현금	500	외상매입금	200
상품	600	자본금	2,200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토지	700		
자산 총계	2,400	부채 및 자본 총계	2,400

<기중 거래>

(차) 현금	900	(대) 사채	900
토지	1,000	현금	1,000
매도가능금융자산	500	토지	500
상품	800	외상매입금	800
외상매입금	400	현금	400
현금	500	매출	500
외상매출금	100	매출	100
광고선전비	260	현금	260

<결산정리분개>

(차) 대손상각비	10	(대) 대손충당금	10
매출원가	350	상품	350
선급광고선전비	135	광고선전비	135
감가상각비	50	감가상각누계액	5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	이연법인세부채	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80

<예 2>(계속)

<표 4>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한 정산표

(단위: 원)

계정과목	잔액시산표		결산정리분개		포괄손익계산서		채무상태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영업활동>								
매출		600				600		
외상매출금	100						100	
대손충당금				10				10
대손상각비			10		10			
상품	1,400			350			1,050	
매출원가			350		350			
광고선전비	260			135		125		
선급광고선전비			135				135	
외상매입금		600						600
<투자활동>								
건물	1,000						1,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50				450
감가상각비			50		50			
토지	1,200						1,200	
매도가능금융자산	500						500	
<채무활동>								
사채		900						900
자본금		2,200						2,200
<현금과 당기순이익>								
현금	240						240	
당기순이익					65			65
계	4,700	4,700	545	545	600	600	4,225	4,225
<투자활동>								
매도가능금융자산			100		100			
이연법인세부채				20		20		
매도가능금융자산				80		80		80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80
당기순이익								90
총포괄손익							170	
합계	4,700	4,700	645	645	700	700	4,395	4,395

처음부터 수입과 수익, 비용과 지출은 서로 다르다는 인식(발생주의) 하에서 수익·비용에 자신의 기업활동이 잘 반

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이익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리, 즉 발생주의(회계인의 판단에 의

한 이익)와 현금주의(이익)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나타낸 것이 <예 3>의 비교재무상태표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이다.

여기서는 수입되지 않은 수익으로서의 외상매출금의 증가(현금흐름의 감소요소),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서의 대손충당금 및 외상매입금의 증가(현금흐름의 증가요소), 지출되었지만 비용이 아닌 상품 및 선급광고선전비의 증가(현금흐름의 감소요소) 등과 현금의 수입·지출

과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감가상각비의 조정이다.

현금흐름표에서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부터 얼마만큼 자금(현금흐름)이 유입되고, 이에 대해 얼마만큼 자금(현금흐름)이 유출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영업활동의 구분에는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활동 영역의 손익요소로부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의 영역에 있는 손익요소를 배제하지 않음

<예 3>

<표 5> 비교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증감내역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영업활동>						
외상매출금	0		100		100	
대손충당금		0		10		10
외상매입금		200		600		400
상품	600		1,050		450	
선급광고선전비	0		135		135	
<투자활동>						
건물	1,000		1,000		0	
감가상각누계액		400		450		50
토지	700		1,200		500	
매도가능금융자산	0		600		600	
이연법인세부채		0		20		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0		80		80
<재무활동>						
사채		0		900		900
자본금		2,200		2,200		0
<당기순이익과 현금>						
당기순이익				65		65
현금	500		240			260
합계	2,800	2,800	4,325	4,325	1,785	1,785

<예 3> (계속)

<표 6>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계정과목	증감 내역	
	감소	증가
<영업활동> 당기순이익		65
<가산항목> 감가상각비		50
대손충당금 증가		10
외상매입금 증가		400
<차감항목> 외상매출금 증가	100	
상품 증가	450	
선급광고선전비 증가	135	
계	685	525
영업활동현금흐름 증감액		160
<영업활동현금흐름 감소액>	160	
<투자활동> 토지 취득	500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	500	
<재무활동> 사채 발행		900
계	1,160	900
<현금 감소액>		260
합계	1,160	1,160

면 안 된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이다. 이는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투자활동에 의한 자산과 관련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당기순이익에서 조정되게 된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중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는 수익·비용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되게 된다. 그러나

당초 알고 싶은 것은 전체로서의 발생주의 이익과 현금주의 이익과의 차이이다. 이에 이들의 현금유입·유출액은 다시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산입되게 된다. 그 래도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의한 자산·부채와 관련 있는 수익·비용은 해당 활동으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인 것이다. 그 결과 발생주의에 의한 이익과 현금주의에 의한 이익과의 차이를 조

정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익비용접근법에서 구하고자 하는 <표 6>의 현금흐름표, 즉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인 것이다.

V. 맺음말

그러면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는 것일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접근법에서는 각 항목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상호 관계가 없다. 여기서 손익계산서는 <예 1>의 정산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의 증감에 의해 수익·비용이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흐름표와 연관시킬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나타낸 것이 <예 4>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이다.

만약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만을 알려고 한다면 <표 7>의 비

<예 4>

<표 7> 비교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증감내역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영업활동>						
외상매출금	0		700		700	
대손충당금		0		70		70
외상매입금		200		600		400
상품	600		650		50	
선급광고선전비	0		20		20	
<투자활동>						
건물	1,000		1,000		0	
감가상각누계액		400		450		50
토지	700		1,200		500	
매도가능금융자산	0		600		600	
이연법인세부채		0		20		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0		80		80
<재무활동>						
사채		0		900		900
자본금		2,200		2,200		0
<당기순이익과 현금>						
당기순이익				90		90
현금	500		240			260
합계	2,800	2,800	4,410	4,410	1,870	1,870

<표 8>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계정과목	손익계산서		자산·부채의 증감조정		현금흐름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영업활동>						
매출액		1,200	700			500
매출원가	750		50	400	400	
광고선전비	240		20		260	
감가상각비	50			50	-	
대손상각비	70			70	-	
<투자활동>						
토지 취득					500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					500	
<재무활동>						
사채 발행						900
<현금 감소액>						260
합계					1,660	1,660

교재무상태표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문제는 수익·비용과 관련있는 영업활동의 구분인 것이다. <표 8>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부채항목의 증감내역, 즉 수익·비용의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예컨대 재무활동의 구분에는 (차) 현금 900 (대) 사채 900의 형태로 현금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채가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영업활동의 구분에는 현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외상 매출금이 매출액에 대한 자산·부채의 증감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외상매출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매출이라는 사실이 별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상매입금과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외상매입금은 비교재무

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금의 유입이 아니라 상품 구입의 결과 나타난 항목이다. 따라서 매출원가의 정보를 나타낸 후 지출로 될 이 금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매출원가를 당기의 지출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로부터 공제되어 있는 상품의 증가는 이에 가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고선전비도 실제 지출한 것은 당기의 비용에 선급분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그 원인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정보와 관련시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손익계산서의 정보는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압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업활동의 구분에는 그 총액(내용)이 재무상태표의 하나의 항목(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상세한 정보인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표 8>)가 바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이다. 이것이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근거인 것이다.

이 경우에도 투자활동의 자산과 관련 있는 감가상각비(건물의 감소)는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영업활동 구분의 현금흐름표에서도 제거되는 것이다.

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IASB와 FASB는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위해 현금흐름표는 각 부문과 구분의 현금흐름을 직접법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IASB와 FASB 공동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향후 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도입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Measurement*, Discussion Memorandum, 1976.
- [2]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95, Statement of Cash Flows*, 1987.
- [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2001.
- [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Discussion Paper, 2008.
- [5]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ff Draft of an Exposure Draft :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X*, IFRS Foundation, 2010a.
- [6]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ogress Report on Commitment to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2010b.

The Structure of Cash Flow Statements by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Jongtae Lee*

Abstract

FASB presented two distinct conceptual views of earnings in 1976. One is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which depends on definitions of assets and liabilities to define earnings and its components. The other is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which depends on definitions of revenues and expenses and relates or matches them to define earnings. Nowadays this conceptual views of earnings shift to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from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This shift remains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n Cash Flow Stateme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Cash Flow Statement was developed by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the structure of Cash Flow Statement by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This study examined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and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by FASB and clarified that Cash Flow Statement was developed by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Next we reviewed the structure of Cash Flow Statement by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In that review we certified that Cash Flow Statement by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should be prepared by the direct method.

* Dept. of Accounting Kyungshung University